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미 인플레 상승 확실... 1월 PCE도 꺾춤
- Reuters: 엘런 재무장관, “인플레 하락하지만 여전히 높아”
- Bloomberg: 팬데믹 이후 사라진 수백만 명 노동자, 어디로 갔나?
- CNN Business: 바이든, 월드뱅크 총재로 전 마스터카드사 책임자 지명

[미국 금융]

- Bloomberg: 달러 약세로 글로벌 가격 압박이 누그러질 듯

[뉴저지]

- MansionGlobal: 뉴저지 주택 소유자들, 작년 재산세 가장 많이 내
- Bloomberg: 뉴저지 트랜짓, 5억 5천만 달러 예산 적자...운영 위기 직면

[글로벌 경제]

- WSJ: ‘기저 효과’가 경제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오해를 일으키나?

[전기차]

- Teslarati: 미국과 유럽, 상반기 전기차 수요 급증
- The Economist: 미국 주별 보조금이 EV 붐 부채질한다...과잉 생산 우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항공사들 요금 인상, 비용 절감해 큰 수익 올려
- CNBC: 미 대도시 식당들, 월/금요일 직장인들 줄어 피해
- WSJ: Target, 1억 달러 투자해 “다음날 배송” 늘린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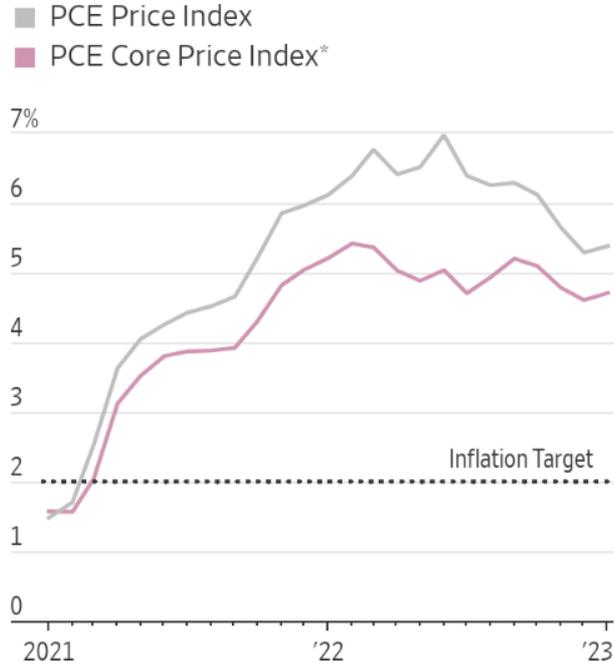
WSJ: Inflation Edged Higher, Consumer Spending Jumped in January

미 인플레 상승 확실... 1월 PCE도 꺾춤

- 인플레 현상은 더 심해졌다. 1월 소비자 지출도 상승했다. 결국, 연준은 향후 수개월간 인플레 억제를 위해 금리를 계속 인상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 오늘 금요일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1월 미 가계의 지출은 계절 조정치로 12보다 1.8% 올랐다. 12월의 전월 대비 0.1%보다 훨씬 높았다.
- 소비 강세는 경제가 견조하다는 추가 반증이다.
- 특히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은 1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다. 12월의 연율 5.3%보다 상승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PCE 역시 1월의 경우 전년 동월에 비해 4.7% 상승해 12월 연율 4.4% 보다도 높았다. 물론 예상치 4.3% 보다도 높았다.

- 한마디로, 인플레이에 승리를 거두기에는 갈 길이 멀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Personal-consumption expenditures price index, change from year earlier



Note: Seasonally adjusted. *Excluding Food and Energy
 Source: Commerce Department via St. Louis Fed

WSJ 기사

Reuters: Yellen says U.S. inflation coming down but core measures remain elevated

옐런 재무장관, “인플레이 하락하지만 여전히 높아”

- 제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연준의 물가 목표 2%에 달성하려면 더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노동 시장과 미국의 대차 대조가 강하기 때문에 침체 없는 연속록 가능성을 여전히 믿고 있다고 밝혔다.
- 그는 러시아 전쟁 문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글로벌 경제 전망은 회복되고 있다며 특히 미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좋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Reuters 기사

Bloomberg: Millions of US Workers Are Still Missing After The Pandemic. Where Did They Go?

팬데믹 이후 사라진 수백만 명 노동자, 어디로 갔나?

- 한 연구에 따르면 예상보다 일찍 은퇴한 미국인 숫자는 최소 2백 10만명이요, 또 다른 연구는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민자 숫자가 2백만명이 부족하다고 계산했다. 또 다른 연구는 장기적인 팬데믹으로 1백만명 이상이 실직했다는 것.
- 그러나 팬데믹이 없었다면 올해 얼마나 더 많은 미국인이 일을 하고 있었느냐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 팬데믹 전에 근무하던 숫자가 지금도 계속될 경우 작년 말에 1억6천8백만명인데, 현재 1억6천5백만명만 일을 해 3백만명이 모자라는 숫자라는 것.
- 그런데 이달 초에 노동부가 12월 비농가 일자리 수를 80만명 이상으로 수정하면서 3백만명 실직자가 3분의 1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3백만명이 안 되는 이유로 1) 근로자들이 사직한 동기를 파악하기 힘들고 2) 팬데믹 기간중 이민자 숫자 변화 가능성 3)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 은퇴한 베이비 붐 세대가 두 번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Biden nominates former MasterCard exec Ajay Banga to lead World Bank

바이든, 월드뱅크 총재로 전 마스터카드사 책임자 지명

- 인도계인 Ajay Banga는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마스터카드사 CEO를 역임했다. 그 이후 2022년부터는 뉴욕의 투자사인 General Atlantic 부회장을 지냈다.
- 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사람과 시스템을 제대로 다룰 줄 알고, 글로벌 지도자들과도 협력하는 경험이 있어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월드뱅크 선장을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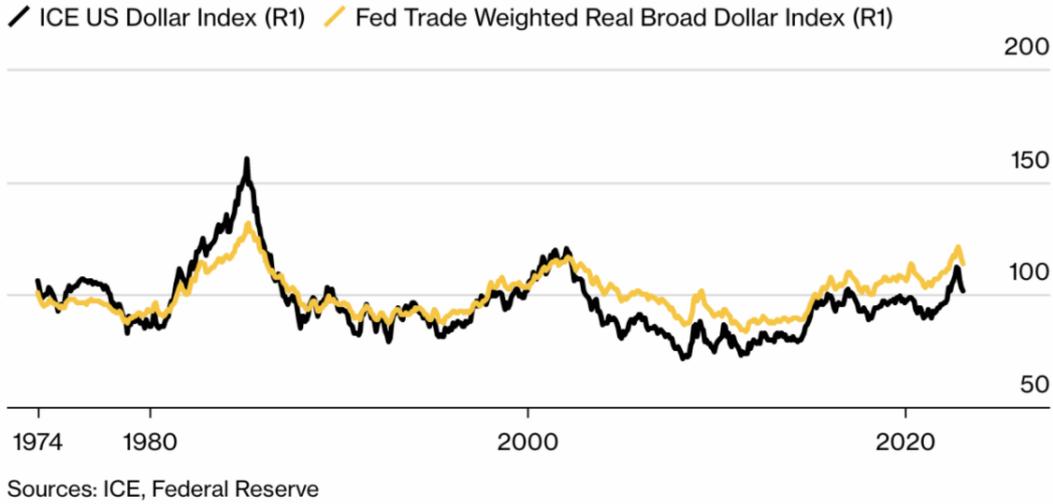
Bloomberg: The World's Most Painful Trade Is Finally Ending as Dollar Peaks

달러 약세로 글로벌 가격 압박이 누그러질 듯

-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 중 일부는, 달러의 광폭 행보가 끝났다는 데 베팅하고 있다. 그동안 전례없는 방식으로 글로벌 경제를 뒤흔든 달러 파워가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투자자들은 말하기를 연준의 금리 인상 대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달러를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시도함에 따라 이들 통화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
- 최근 데이터를 보면, 투자자들은 금리가 얼마나 더 올릴지 재검토하고 있지만, 미국 달러 강세가 약화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주식으로부터 이머징 마켓으로 위험 자산이 이동하고 있다.

- 달러 정점은 이미 지나갔고 구조적으로 앞으로 달러 약세가 앞에 놓여있다는 것. 그리고 미 금리 추가 인상 신호가 보이지만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 자연히 개발도상국가들의 수입 가격도 떨어질 것이라는 것.

Dollar Gauges Rose to Multi-Decade Highs in 2022



Bloomberg 기사

[뉴저지]

MansionGlobal: New Jersey Homeowners Have the Highest Property Tax Rate in the U.S.—Yes, Again

뉴저지 주택 소유자들, 작년 재산세 가장 많이 내

- 금융업체 WalletHubrating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낸 주민은 뉴저지 주민, 가장 낮은 곳은 하와이로 나타났다.
- 뉴저지 재산세율은 2.47%로 주택 중간값을 \$355,700로 산정했을 경우 재산세 \$8,797을 납부했다.
- 하와이는 세율 0.29%로 중간값 \$662,100으로 작년에 \$1,893을 납부했다.
- 뉴욕주 역시 비싼 편으로 세율은 1.73%, 중간값이 \$340,600이면 \$5,884로 나타났다. 주택 매입 고려할 때는 모기지율과 재산세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MansionGlobal 기사

Bloomberg: NJ Transit Faces Record Breakdowns, \$550 Million Budget Hole

뉴저지 트랜짓, 5억 5천만 달러 예산 적자...운영 위기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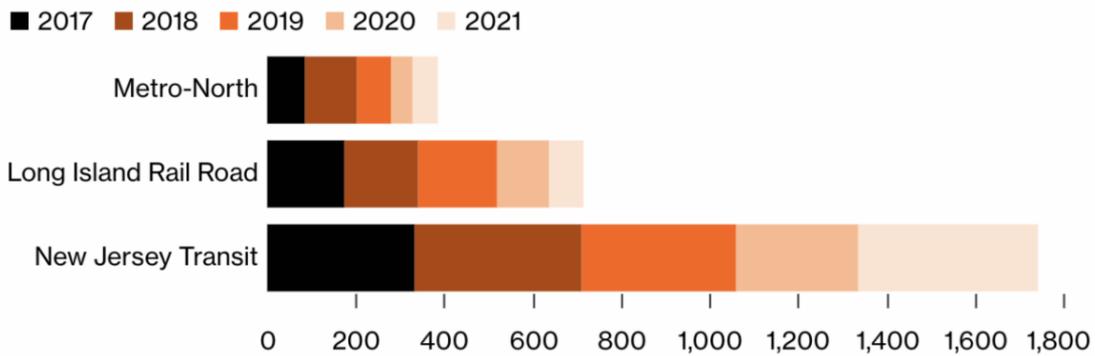
-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Phil Murphy 뉴저지 주지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뉴저지 트랜짓의 예산 적자

가 2026년 5억 5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운영 위기에 직면했다.

-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뉴저지 트랜짓이 뉴욕시를 넘어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팬데믹 시기 연방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하이브리드 근무가 늘어나며 통근 승객 수도 줄어들었다.
- 한편 뉴저지 트랜짓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비영리 단체 Trenton-based Environment New Jersey의 Doug O'Malley 는 “뉴저지 트랜짓의 해결책은 요금 인상, 서비스 감축이 아니라 안정적인 자금원을 얻는 것” 이라고 말했다.

NJ Transit Trains Break Down More Than Peers

As two fellow New York City-area commuter rail services mostly reduced breakdowns over five years, NJ Transit's increased



Source: National Transit Database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WSJ: How ‘Base Effects’ Trip Up Our Understanding of the Economy

‘기저 효과’가 경제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오해를 일으키나?

- 기저 효과는 어느 기간에 걸쳐 변화를 살펴볼 때 현재보다는 1년 전에 발생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 기저 효과는 정확하게 바로 1년 전에 갑작스런 글로벌 에너지와 식품 폭등을 불러일으킨 작년 러시아 침공 때문에 더 관심을 끌고 있다.
- 전년도 대비한 인플레이 수치 계산은, 1년 전 가격 상승 때문에 매우 엉망이 될 수가 있다.
- 예를 들어, 지난해 이월에 가솔린이 갤런당 3불 50센트, 3월에 4불 20센트, 6월에 5달러를 상회했다. 3월부터 6월까지의 인플레이 계산은 극심한 가격 인상을 포함한 기반에서(기저에서) 계산될 것이다.
- 그런데 기저 효과 때문에 분석상 실수가 나타날 수 있다. 만약 가솔린 가격이 3월에 3불 40센트에서 6월에는 4불 50센트로 올랐을 경우 이는 기록상에 6월 가격으로 사상 두 번째로 올라간 수치일 것이다. 그러나 기저 효과

때문에 연간 비교해 10%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급하게 인플레이션을 통제했다는 판단을 성급하게 내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전기차]

Teslarati: EV demand spikes in the U.S. and Europe during first part of the year

미국과 유럽, 상반기 전기차 수요 급증

- Deloitte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EV 구매에 대한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3명 중 1명, 유럽인의 거의 절반이 자신의 차량이 전기차가 되는 것을 선호했다.
- 심지어 많은 소비자들은 ICE(Internal Combustion Engine, 내연기관) 차량을 장기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잔류 가치 위험(the residual value risk)”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럽과 북미의 휘발유 가격은 2020년 말에 비해 여전히 높고, 세계 각국은 EV 인센티브로 소비자와 공급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2030년 중반까지 ICE 금지 규정이 늘어날 것이다.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EV에 대한 높은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EV 혁명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Teslarati 기사

The Economist: State subsidies fuel America's EV boom but risk overcapacity

미국 주별 보조금이 EV 붐 부채질한다...과잉 생산 우려

- 연방 정부의 지원 외에도 미국 전역에서 주별 전기차 산업 보조금이 나오고 있다. 미시간주는 포드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 10억 달러를, 오하이오는 혼다에 2억 4천만 달러, 캔자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의 기업들도 1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았다.
- IRA에 힘입어 미국이 EV 산업의 선두자로 급부상하면서 주들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EV 업계 투자는 그 규모와 속도 면에서 사상 최대에 달한다.
- 한편 주 정부들은 코로나 19시기 연방 정부의 부양책으로 막대한 흑자를 남기며 재정이 여유로운 상황이다. 게다가 IRA가 2032년 만료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그 이득을 보려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 하지만 많은 보조금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월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2021년 연간 55 gigawatt-hours였던 미국의 배터리 제조 용량을 2030년까지 약 900 gigawatt-hours로 늘릴 것이며, 이는 연간 약 1천만 대의 EV 생산을 지원할 것이다.
- 그것은 현재 미국에서 연간 구매되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인데, 수입을 고려하면 엄청난 양이다. 게다가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현

재 기술이 초기 단계임을 고려할 때 지금 짓는 공장들은 금세 쓸모가 없어지고 과잉 생산을 맞을 수 있다는 것.

The Economist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Airlines Are Posting Big Profits After Raising Fares, Cutting Costs 항공사들 요금 인상, 비용 절감해 큰 수익 올려

- 팬데믹 시기 국경 봉쇄가 완전히 개방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항공사들이 기록적인 순이익과 흑자를 보고하고 있다.
- 분석가들은 팬데믹 이후 여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억눌린 수요와 항공사들의 비용 절감 조치가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항공사들이 요금을 올렸음에도 소비자들은 기꺼이 높은 항공료를 지불했다.
- 에어버스와 보잉사의 신규 항공기 출고 지연, 지난해부터 이어진 노동력 부족 상황 등으로 항공편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점도 항공료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 한편 국제 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공사들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여파로 트래픽이 더딘 회복세를 보이며 2023년 66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미국 항공사들은 국내 수요의 회복으로 국경 봉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WSJ 기사

CNBC: Big city restaurants and bars are missing office workers' spending on Mondays and Fridays 미 대도시 식당들, 월/금요일 직장인들 줄어 피해

- 미국 도시들의 많은 식당과 호텔들의 매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대부분의 판매가 화, 수, 목요일에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뉴욕,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와 같은 도시에서 주3일 근무제가 흔해지며 월요일, 금요일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WFH Research에 따르면 지난해 6~11월 뉴욕시의 1인당 지출 감소액은 4천6백 61달러, LA는 4천 2백 달러에 달했다. 원격 근무가 도시에 연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에 도심 지역의 많은 식당들이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와 맞물려 문을 닫거나 교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

CNBC 기사

WSJ: Target Investing \$100 Million to Expand Next-Day Delivery Target, 1억 달러 투자해 “다음날 배송” 늘린다

- Target이 아마존, 월마트 등과의 경쟁을 위해 향후 3년간 1억 달러를 투자해 익일 배송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들은 2026년 말까지 미 전역에 최소 6개의 물류 선별 센터를 추가로 열어 배송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미국 전역의 2천개 매장을 유통 허브로 사용하며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전략의 일부이다.
- 한편 Target의 온라인 매출은 다른 소매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기간 29% 급증한 후 2022년 3분기 0.3% 성장하며 둔화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전자 상거래가 Target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투자를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미국, 개전 1년 맞아 러 지원기업 무더기 제재...관세 인상도"

"거의 90개 기업 수출통제...중기업도 포함"

미국이 러시아 등에 대한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발표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여기에는 대(對) 러시아 제재조치를 위반한 러시아와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 통제 등 제재와 러시아산 금속·광물·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가 포함됐다.

이번 발표에는 올해 봄 공세를 준비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20억 달러(2조6천억 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